



나눔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0. 3.

타문화체험 나눔 1

지난해 4월3일 봄의 따사로움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저는 타문화체험과 언어연수를 위해 아시아의 유일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 보다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밀려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날씨와 언어의 벽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국의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는 열기는 저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저를 마중해 주었던 책임자 수녀님, 우리 공동체를 찾아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던 열대의 화려한 꽃들이 저를 먼저 환영해 주었고 공동체에서 자매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근처에 있는 성당의 새벽미사에 처음 참례했을 때의 그 신선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단 앞쪽에 아주 커다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너무도 힘이 있어 보였고 온화했으며 그 주변을 새들이 날아다니며 노래하는데 그것이 너무도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운 날씨에도 하루를 미사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미 그 때의 한낮 기온은 40도를 육박하던 때였고 성당에는 선풍기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약 한 시간 거리인 퀘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처에 예수회 대학과 필리핀 대학이 있는 다소 학구적인 동네로 인근에는 많은 수도회들이 있었는데 마치 제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의 명륜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곳 우리 공동체는 필리핀에 있기는 하지만 중화권의 이미지가 더 강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제가 필리핀에 온 것인지 중국에 온 것이 의아해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본토가 포함된 관구소속임을 알게 된 후 저의 모든 의문은 풀렸습니다. 대부분 자매들이 영어연수를 목적으로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생각도 못하게 필리핀에서 중국 자매들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의 여정은 모든 것이 언어 연수 자체였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영어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그들에게도 저의 도착은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까닭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천천히 진행되었고 이미 능숙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자매들도 항상 기다려 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로가 어려웠던 소통이 오히려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중국문화권의 자매들과 함께 하는 국제 공동체로서의 변화를 짧은 9개월이지만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중국본토교회의 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 직접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 큰 선물이었고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그들의 깊은 신앙심에 그리고 일상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배려와 따뜻함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많은 다른 국적의 자매들이 옴으로써 이런 변화를 더 많이 가능케 했고, 주어진 시간동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고정된 시선을 바꾸려 함께 노력하는 것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한 첫 관문인 진단평가의 날에 주어진 100개의 문항은 그래도 객관식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어작문을 하라는 주문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 쏟아지는 영어를 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수업시간, 꽤나 부담스러웠던 수많은 과제들, 정말 학원생활도 도전과 극복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공부 시간 동안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익숙해진 타언어와 문화 이해에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문화 속에서 온 수많은 급우들과의 소통으로 이뤄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특성상 사제와 수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풍성한 카리스마를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필리핀관구의 몇몇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곳에서 120년이 넘게 현존하면서 봉헌과 봉사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자매들에게서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도 크게 바꾸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 삶을 이웃들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라는 목적 외에도 그 필리핀이라는 지역과 그곳 사람들의 친근함과 전례의 특이성을 접하는 것도 값진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의 역사를 통해 신앙을 이식된 그곳에서 사실 저는 가톨릭 수도자인 것인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자유롭지 않았으며 늘 풀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어떤 분이 “침략자들이 가져온 것들을 모두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톨릭 안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가치들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6.25전쟁 후의 판자집이, 지금으로 치면 쪽방촌의 삶이 보통이며 소수의 부자들 곁에 아주 가까이 공존합니다.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할 때, 길을 따라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수도 옆을 걸을 때, 작열하는 태양아래서 노동하는 수많은 이들을 볼 때, 길거리 어디서나 수도자인 저에게 축복을 청하며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꼬질꼬질한 때가 끼인 손을 잡을 때 마다 나는 정말 자유롭게 가난을 선택하였는지, 절대적인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질문하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고 아이들의 웃음은 참으로 싱그러웠으며 누구든 만날 때 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곳에서 가졌던 시간들,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깊이 체험한 것은 더 없이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인선 베르디아나.fmm

▶ 타문화체험 나눔 2

fmm 후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남지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기서원 3년차인 정연수 잔다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남짓한 시간을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타문화 체험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풍요로웠던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베트남 남부에 있는 호치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이공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에 fmm 베트남 관구집이 있고 거기에서 며칠 머무른 후 같은 호치민 도시에 있는 띠명 공동체라는 곳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 공동체는 fmm수녀님들이 선교나 타문화 체험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6개월정도 머무르면서 영어를 배우고 여러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자매들과 3개월동안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영 어색했는데 하루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 해주었고 미사 때에 강론도 영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어렵거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는 수녀님들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일상 안에서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62명의 유기서원자매들과 총회준비모임도 같이 하고 또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공동체 축일을 함께 준비하면서 문화와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몸인 fmm의 삶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12월초 경에 땡기열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제 상태를 본 공동체 수녀님이 병원을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괜히 하느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따졌어요. ‘왜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아파야 하죠? 왜 제가 아픈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왜요?’ 누워있으면서 수도 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만났던 젊고 이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분은 가톨릭 신자였고 저희 책임자 수녀님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 세례를 받았고 수도자의 꿈을 키워왔었는데 몇 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고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책임자 수녀님께서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공동체에 한번 놀러오라고 하셨는데 그 자매가 다행히 공동체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간호사인 자매에게 fmm을 알게 해주고 싶어하신 하느님의 계획에 저를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감기를 앓았더라면 그 병원에 가지 않았겠고 그때 아니었다면 그 자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그분께 봉헌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그 익숙한 말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체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띠명 공동체에서 3개월을 보내고 저는 베트남 중부 퀴녕시에 위치한 퀴화 공동체에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베트남 fmm의 첫 공동체인 이 곳은 나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만드신 한 프랑스 신부님께서 fmm 수녀님들을 초대하셨고 프랑스에서 파견되어 오신 수녀님들로 시작한 이 공동체에는 현재 12분의 베트남 수녀님들이 사시면서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 수녀원 내부 집안일들, 성당 관리 등의 사도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주민 역시 대부분 한센병 앓던 사람들 이거나 그 환자의 가족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여전히 한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치료를 위해 정부와 종교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면 수줍은 미소를 띄며 인사를 받아주는 그들을 보면서 어려움 안에서도 순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4개월의 시간 안에서 저는 하느님은 정말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녀님들이 끊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타국에서 그 무엇도 없이 가난했던 저를 하느님께서 끊임 없이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체험들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확신이 생겼고 ‘가난해도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구나.’하는 마

음이 들어 낯선 환경 안에서도 안심하며 지냈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상을 사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베트남이어서 더 컸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느님은 항상 저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3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더욱더 잘 알아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후원자 여러분들 모두 은총 가득한 한달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 정연수 잔다크.fmm

클나눔

각자의 자리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다가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고, 신종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인간, 동물,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건강'(원-헬스 one-health) 개념으로 감염병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인간과 동물, 환경은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합니다만,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졌을 때도 해당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삶도 함께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공장식 축산이 큰 몫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전문가들은 신종 전염병의 주된 원인으로, 밀림개발, 가축의 증가, 교통의 발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앞의 두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즉, '개발'이라는 이름의 밀림파괴,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의한 공장식 축산입니다.

그런데, 어디 밀림파괴와 전염병뿐이겠습니까? 자연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거주지와 활동영역을 넓힌 탓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기도 합니다. 전망이 좋다 하여 바닷가 바로 옆에 집을 지어 태풍 피해를 더 심하게 입기도 합니다. 기상조건을 무시하고 산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산사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높고 험한 산일수록 정복하려는 의지가 불탄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럴 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함부로 침입한 그 교만함보다는 자연의 '잔인함' 혹은 '난폭함'만을 부각시킨다면, 자연으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산을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멧돼지나 고라니, 이미 바다를 메워 도로가 되었는데도(늘 다니던 길이니), 그 위를 지나가다 타이어에 깔려 몰살당하는 어린 바닷게들, 로드킬을(road kill) 당하는 수많은 야생동물들,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원의 곰, 호랑이, 사자 등등. 그들이 살 곳을 빼앗기고, 인간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박쥐로 돌아와서, 박쥐는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피조물 중 하나로서 그저 지어진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식용으로 잡아들였든,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었든, 인간 세계 가까이 불러들인 것은 인간입니다. 지구 공동체가 인간과 동물 모두의 집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집이라면 각자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조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느라 다들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른만큼, 큰 교훈을 얻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영주 스텔라, fmm

수녀회 소식 - 한국관구 파견

2020년 2월 5일 일본관구에서 치카 오쿠다 세실리아 수녀님이 한국관구로 파견되어 오셨습니다. 7일 가리봉 관구관에서 저녁기도 중 세실리아 수녀님의 한국관구 받아들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2018년 10월 13일 일본에서 종신서원을 하신 후 한국관구로 파견을 받으셨습니다. 수녀님이 한국에서 FMM 전교자로서의 소명을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